



질문을 하며 따라다니는 기자에게 자상하게 답을 해주는 도견 스님.



델린트 이휘향씨는 도견 스님의 열렬한 팬(?)이다.



틈틈이 <금강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 일과다.

아침·점심·저녁 하루 세번의 포행으로 건강과 화두를 함께 챙기는 도견 스님은 일상이 모두 수행임을 의식하지 말라고 당부한다(왼쪽).

“마음이 어디 있나 살피며 걷지”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도견 스님 (해인사 동당 수좌)

새벽 3시. 침묵 같은 어둠을 가르는 목탁소리에 가야산 해인사가 깨어난다. 극락전에도 불이 밝혀졌다. 해인사 동당 수좌 금성도견(金城道堅) 스님의 오늘이 시작되는 것이다. “극락전에는 나처럼 나이 많은 스님들이 살아오. 우리는 더 이상 대중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자유롭지요.” 노스님의 일상을 궁금해 하는 기자에게 일러준 스님의 ‘자유로운 생활’은 새벽 3시부터 어김없이 이어진다.

땀 땀 땀! 땀 속 소리가 떨리듯 들리면 스님은 방에서 예불을 시작한다. 대중들과 함께 하지 않을 뿐 엄숙하고 경건한 예불로 시작하는 노스님의 하루는 한 치의 허술함도 용납되지 않는 수행자의 시간이다.

새벽 6시. 예불과 정진으로 숙연해진 극락전 뜰에는 아직 어둠이 두터운데 아침 공양을 마친 도견 스님이 포행에 나선다. 바람이 매섭지만 아랑곳없는 스님의 ‘자유로운 수행’은 휘적휘적 걸음 속에 쉽

없이 이어지고 시냇바람이 날이 밝아온다. 오전 10시 40분. 점심 공양시간이다. “원래 대중들과 발우공양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아 노스님네들만 따로 공양을 합니다.” 일일이 설명하는 스님의 자상함이 따뜻하다. 스님의 인자함은 후원에서 공양 찬을 준비해온 보살에게도 이어졌다. “보살, 오늘은 사진 찍는 날이야. 보살도 같이 찍어.” 카메라를 들이대는 기자를 가리키며 불속 내린 스님의 한마디가 천진난만한 풍자음을 연상케 한다. “스님,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습니까?” “밥 먹으면 그게 제일 좋지. 천 가운데는 김치가 제일 좋아. 마냥 먹어도 좋아. 그래서 평생 먹지.” 괜한 질문이었다. 오직 하나를 향한 수행자에게 중생의 차별심은 관심 밖의 일인데 말이다. 도견 스님의 포행은 오후 1시에 다시 시작했다. 스님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포행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못 중생들과 소통한다. 새벽에는 일주문

“가장 귀히 여기는 물건은 무엇인지요” “한 물건이 있지”
“제게 주시겠습니까” “자네에게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가?”

쪽으로 나가 한 바퀴를 돌아오고, 점심때는 극락전 뒤쪽으로 나 있는 포행 길을 따라 지족암 회랑대 암자 주위를 거쳐 성철스님 사리탑을 돌아온다. “혹 날씨가 좋을 때는 일타 스님이 주석하던 토굴에도 올라가는데 45분가량 걸린다. 육각형으로 만들어진 토굴은 가야산이 한 눈에 들어오고 일반인의 출입이 없어 정진하기 안성맞춤이다.” “스님, 포행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어디 있나 살피지.” 스님과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것을 보기 위해 용을 쓰며 따라나선 길, 스님의 대답에서 서툰발 같은 서늘함이 배어 나왔다. “스님도 화를 내십니까?” “진심을 내지 않아야 수행이 되는 것이지. 간혹 가르치기 위해 야단을 치지만 진심이 나서 야단치는 것은 아니지.” “스님도 발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부처님 제자가 발원이 없을 수가 있다. 해인사에는 ‘속성 정각하여 중생제도하여자이다’ 하는 좋은 발원문이 법당에 있어요. 광범위한 발원인데 모든

강원스님들이 새벽예불에 교대로 나가 읽지요.” “포행하면서 못마땅한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까?” “공부만 하고 다니는데, 그런 여유가 있나?” “찾아오는 수행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들어오는 것에 대답을 해주지.” 스님을 따라 나선지 1시간 여 만에 다시 극락전으로 돌아왔다. 방 입구에는 주장자가 여럿 있다. 방 안에는 스님의 자취가 어린 일상의 물건들이 시선에 들어왔다. 주장자는 노스님들이 방문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개를 비치해 둔 것. 스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은 과연 무엇일까? 스님의 작은 눈이 반짝 빛났다. “물건? 한 물건이 있지. 푸른 것도 검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짧은 것도 아닌데...” 스님의 목소리엔 단호한 힘이 실렸다. 또, 얼굴엔 싱그러운 기운까지 감돈다. “스님, 그 물건 저에게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가져갈 것이 아니지. 자기에게 있는 것인데, 감춘

것도 아닌데 뭐. 동 서 남 북, 또 그 사이사이 상 하 이렇게 시방세계에 다 있는데 물질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는 그런 말이 통하기 어렵지.” 스님이 귀한 물건을 내 놓았는데 볼 줄 아는 눈이 없어 보지 못했다.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대답할 게 그것 밖에 없어요.” 스님은 다시 자상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다. 스님을 졸졸 따라다니 하루, 스님을 많이 괴롭혀 드렸다는 생각이 죄송함이 가득하다. “누구든지 공부를 하기 위해 찾아온다면 만나주고 또 질문에 대답해주는 것이 스님이 할 일입니다.” 죄송함과 감사함조차도 통글러 부처님 전에 내려놓으라는 듯 스님은 다시 본래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하루 종일 움직인 바 없었던 것처럼.

60여년 전국 선방서 수행해온 선사

도견 스님은 도견(道堅) 스님은 1925년 인천시 강화군 화전면 부곡리에서 태어났다. 백련사의 화주보살이었던 어머니를 따라 어린 시절 백련사에 다녔던 스님은 땀가에 이끌리듯 발심하여 1944년 오대산 동관암에서 지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45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3년간 교화공부에 몰두했다. 나이 25세에 해인사에 온 후 해인사가 좋아 지금까지 머무르게 됐다. 스님은 순천 송광사, 선산 도리사, 부산 범어사 등 전국 각지 선방에서 수행했다. 스님은 80년대 중반 중앙종회의장과 해인사 주지를 역임하고,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을 지냈다. 해인사 율원에 주석하면서 <금강경> 1천부를 인쇄해 해인사 율원 교재로도 사용하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으며, 해인사의 큰어른으로 눈 푸른 남자를 이끌기도 했다. 현재 스님은 해인사 동당수좌로 극락전에 주석하고 있다.

이제 스님 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추운겨울 온열기능이 되는 참선방식으로 수행정진 하세요~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태화산 광현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식

스님용
참선방식

참선
방식

절방식

건강
좌욕방식

지동차
방식

법회 및 기도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 토르말린, 피톤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효능

- 장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안한 자세 유지와 바닥의 냉기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 최추의 근육을 예방하여 줍니다.
- 장시간의 좌선 및 운동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앉아만 계셔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 단전의 안정화기에서 연기화신을 이루어 연신환허에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커버 : 최고급 내장 및 원단사용
- 열원 : 신기술 "세라믹히팅보드"
- 쿠션 : 특수제작 및 설계 메모리폼
- 콘트롤러 : 온도조절 기능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조 찜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인 아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많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 바른자세를 유지케 합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은이온수 토르말린, 피톤치트는 살균, 정화기능이 있습니다.
- 최고급원단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 011-281-5619
- 홈페이지 : www.heatway.co.kr
- 제 조 원 : ㈜예간하이텍
- 계좌번호 :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예간하이텍)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허 및 인증제품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계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내 마음의 부처를 만나자

도견 스님의 가르침

*摩訶大王(마하대법왕)이여 無短亦無長(무단역무장)이로다 本來非垢白(본래비조백)

이로대 隨處現青黃(수처현청황)이로다.*

이것은 중국 송나라때의 아보(哈父) 스님이 <금강경>을 풀이한 <금강경송>의 서문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마하대법왕이란 부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언어로도 표현 못하고 문자로도 표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으며, 본래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닌데, 푸른 것 있는데 가변 푸르게 나타나고, 누런 것 있는데 가변 누렇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 육조 스님의 법문도 그랬습니다.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무엇이나?”고 물으니 한사람도 대답을 못했지요. 그런데 남악회양 선사가 8년 만에 다시 와서 “한 물건도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육조 스님이 ‘한 물건’이라고 했지만 ‘한 물건’이란 말도 석연치 못한 말이지요. 이 자리는 입만 떼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기 몇 년, 몇 년 하는데 역시 맞지 않습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때를 그저 ‘한 때(一時)’라고 했었는데 시간을 초월한 시간이기도 ‘한 때’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몇 년, 몇 년이라는 말은 중생들이 다 자기네 소견을 붙인 것입니다. 또, 항상 있는 것은 모두 업보대로 나온 것이니 형상에 얼마까지 말고 자기 마음을 찾으라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간혹 법을 들으러 오는 수행자 중에 ‘비결(秘訣)’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결이란 스님네들이 일러준 예인 같은 것인데 <정감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결에는 장자 사람의 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말도 있는 모양입니다. 다 죽어도 죽지 않는 도리가 있는데, 비결을 믿고 남퍼러지에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사가 물거품이고 하잘 것 없는 것인데 형상에 집착하는 중생심을 따르니 비결을 믿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부처를 찾으면 불교를 다 안 것이니 참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님들은 부모 형제 다 버리고 견성성불 하겠다고 출가했으니 땅에 눕지 않은 채 일주일 옹공정진도 하고 3년결사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스물다섯 살에 오대산에서 해인사로 와 3년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효봉 스님도 함께 결사에 들었는데 좀처럼 끄터지지 않아 ‘절구통수좌’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해인사 3년결사는 한국전쟁으로 끝까지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범어사에 갔는데 등산 스님이 입적하시는 틈에 또 이루어 못했습니다. 결국 송광사에서 3년결사를 했습니다. 3년간 이불과 베개 없이 하루 3시간만 자고 정진했습니다. 어렵지만 부모형제 버리고 견성성불하겠다고 출가했으니 부처님 법을 알아야겠기에 계속해서 3년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3년결사를 하는 동안 부처님 법문이 저절로 알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자동적으로 그 뜻이 자꾸 알아집니다.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무슨 물건이고?”라는 법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물건도 맞지 않지만 당처를 말하기 위해 한 물건이라 한 것이니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물건이 있는데 곳에 따라 푸르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보는 대로 물이 들고 하는 것입니다. 잘 공부해 마음을 깨치면 도인이 되고 중생의 나쁜 경계를 자꾸 따라가면 나쁜 업을 많이 짓게 되고 사람구실을 못하는 그런 도리에 듭니다.

그래서 보통 수행자에게는 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계를 말합니다. 해인사에는 율원이 따로 있는데 조선조 500년 동안 없었던 것을 성철 스님이 율을 잘 알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계율은 첫째, 절에 들어오면 사미 십계가 있고, 비구 250계가 있고, 비구니 348계가 있습니다.



<금강경>에 부처님 가르침이 다 들어 있다는 도견 스님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찾으면 불교를 다 아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마음(마음)에는 보살계와 오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 율문에 나오는 계입니다. 수행자가 생활에서 지켜야 할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재가자에게는 <범망경> 보살계가 있는데 10중대계(10가지 무거운 계)만 지켜도 부처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48경계(48가지 가벼운 계)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먹지 말라는 계가 있고 술그릇을 들어 한 잔을 권한 행위로 500생을 손 잃는 과보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구계에도 고기를 먹지 말라는 계가 있지만 환자인 경우 스스로 죽은 고기, 죽이는 소리를 안 들은 고기, 세 사람의 손을 거친 고기는 부득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범망경> 보살계에는 세칙도 많고, 물건을 훔치는 것, 훔치라고 시킨 것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설명이 아주 상세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집안이나 사회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싸움도 많은 모양입니다.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법은 없는데, 간혹 TV 프로그램 보면 가족이 서로를 존중할때 가정이 평화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깝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양보도 해야 해요. 요즘 사람들은 부처님 법문을 해주면 재미없다 하고 우스갯소리 따위를 들리거나 좋아도 하니 큰일입니다. 마음을 이르는 부처님 법문이 참법문인데 말입니다.

이런 부처님 법문이 모두 <금강경>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금강경을 한권으로 엮어 율원과 선원 스님들에게 모두 나눠준 적이 있지요.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세상의 진리가 다 있지요. 선방스님들은 걸망에 이 책 한권만 넣고 다니면 의심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모조폭 내마음의 부처를 찾으면 불교를 다 안 것이니 열심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정리=배지선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7>



참 살기 어려운 이 세상

사바세계 - 바로 여러분과 제가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이름입니다. 참아만 하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토(忍土)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고단한 곳입니다. 게다가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이 벌어지기 보다는 괴롭거나 슬픈 일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이 세상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며 그 실상을 스무 가지나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하여 남에게 배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배플라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 마음을 표시하고 싶을 때 가난한 자식은 원망스러운 때가 많습니니다.

둘째는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풍요로워지고 명예가 올라가면 마음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가난할 때는 일단 그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급선무인나지만 돈과 명예를 얻고난 뒤에 마음공부를 하려들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합니다.

열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무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급한 일이 벌어졌으면 어서 해결을 해야 하나지만 감정이 그 사이에 들어가 버리면 속만 끓이게 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열한번째는 널리 배우거나 진리를 탐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열두번째는 아만심을 없애기 어렵다고 합니다. ‘나’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나’라는 것은 인연이 화합되어 이루어진 것인데 ‘나는 이렇다’라고 주장하고 고집하며 남을 인정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열셋째는 자기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기 어렵다고 합니다. 열넷째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마음을 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열다섯째는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비는 분명하게 가려져야 하지만 그러기까지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열여섯째는 훌륭한 스승이나 좋은 벗을 만나기 어렵고, 열일곱째는 도를 배워서 깨닫기가 어렵고, 열여덟째는 방편을 풀어서 사람들을 구제하기 어렵고, 열아홉번째는 어떤 일과 마주했

사바세계는 온통 어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만 뒤집어 보면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수행도량 아닐까요

셋째는 목숨을 버리고 죽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자는 죽게 마련이지만 가까운 이의 임종의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도 괴로운 일인지를 절실하게 느껴줍니다.

넷째는 부처님의 경전을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차분한 심境的의 말씀에 자신을 쏟아 붓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다섯째는 부처님 제신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섯째는 색욕을 이겨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물다를 때는 욕정이 정화되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곱째는 좋은 것을 보고 탐내지 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항상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게 되지요. 그런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덟째는 모욕을 당하고서 화내지 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잡보장경>에는 나보다 못한 이에게 참는 것이 가장 훌륭한 참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홉째는 세력 있는 사람이 세력을 쓰지 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올 때 마음이 동요되지 않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무번째는 방편을 잘 알아서 쓰는 것 또한 어렵다고 합니다. 방편이란 목적을 향해 ‘다가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서두르지도 게으르지도 않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십이장경> 제12장)

그야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온통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이요, 이 세상은 고해인 것 같습니다. 내 맘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온 것이 기적 같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조연자를 구하고 공리하고 고민하고 부딪치고 좌절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진실한 나의 모습인가를 애써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사바세계가 고통의 바다, 참아야 하는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수행도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스무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은 참 살맛나는 곳인데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 이미령(동국대학교 역경원원)

세계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헌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수기업장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鑄鐵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범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선제한 문양과 부조로써 소리를 이제 대형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선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현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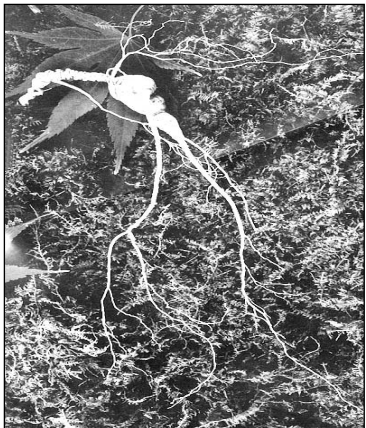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현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oungjongsas.co.kr / E-MAIL : sungjongsas@hotmail.com
대표 : 범사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

元·氣·回·復 송년 및 새해맞이 특별할인가 대 판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값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형준비에 지친 수행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蔘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조되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면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화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효 효험이 있다.

확하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몸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